

# 근로자의 날에 즈음하여

- 청와대 방문 근로자 대표들에 대한  
대통령 즉석 연설 -



대통령 노태우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계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900만 우리 근로자는 나라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오늘처럼 거대한 선박, 자동차로부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우리 제품들이 세계의 모든 나라,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없는 곳이 없는 수출국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어릴때 배고픔에 시달릴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온 우리 근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온 국민과 함께 900만 근로자에게 감사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축하하며 우리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청와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는 작년 “근로자의 날”에 노총회관에 갔을때 받은 뜨거운 환영을 잊지 못하며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유세장에서 만나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근로자들, 힘차게 손을 잡고 나에게 용기를 주신 근로자들, 밝은 웃음 따뜻한 손짓으로 나를 맞아주던 젊은 근로자들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남다른 훌륭한 일을하여 큰 상을 받으신 여러분을 이 모든 분들의 대표로 만나게 되니 반가움과 기쁨이 더합니다.

여유가 있고 재력이 있으면서 좋은 일 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시간과 생활에 쫓기며 땀흘려 일하는 가운데 이웃과 직장,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은 진주보다 더 빛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900만 근로자와 그 가족은 전 국민의 반을 차지합니다.

이분들이 안정되고 행복하며 보람있는 생활을 할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선진복지사회가 되며 진정한 “보통사람의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시대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모든 근로자들이 휘파람을 불며 신명나게 일한 뒤 안락한 가정위에 기쁨을 누리는데 그때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근로자들은 손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히고 허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살 깊어질 만큼 많은 일을 해왔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정당한 사람 대접,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아직 못 받고 있는 부문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

## “ 사용자와 근로자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인은 권위연설에서 벗어나야 할 때 ”

---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근로의 조건과 생활의 수준이 많이 나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작년, 격심했던 노사분규는 기업들에게도, 근로자들에게도 또 정부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삶의 터전입니다. 기업이 잘 안되면 기업인은 물론 근로자의 터전도 허물어 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험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할 때입니다.

기업인은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동반자로서 근로자들의 지위와 인격을 존중하고 기업이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근로자의 몫을 더 넉넉히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더욱 왕성한 생산의욕으로 나타나 기업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확대 재생산을 통해 얻어지는 발전과 성장의 더 많은 열매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기업도 성장해야 합니다.

노사공영은 반목과 투쟁이 아니라 서로 필요로 하고 이해하는 동반자 관계에서 이룩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학력간의 임금격차, 관리직과 노부직과의 격차는 줄이고 적극적인 소득분배정책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도와나갈 것입니다.

노사간의 문제는 자율적인 협조로 해결토록 하고, 정부가 더 가진 사람의 편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잘 발전하면 이러한 모두의 노력으로 근로자들이 중산층이 되는 사회를 머지 않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은 수의 가진 사람과 절대다수의 못가진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피라미드의 사회가 아니라 목이 없이 둥근 조선백자 항아리처럼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경제의 민주화이며 보통사람의 시대입니다.

나는 앞으로 근로자 여러분과 만나는 기회를 가능한한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로자와 만날때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대통령, 근로자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큰 용기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988. 3. 11